

A Preliminary Study on the Direction of Public Design Guideline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주 저 자 : 장영호 (Jang, Young Ho)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교수
nagoyajang@hongik.ac.kr

공 동 저 자 : 채완석 (Chai, Wan Seok) (주)투엔티플러스 부대표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ocial and spatial challenges faced by rural areas, including agricultural and fishing commun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design, and to propose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spatial design guidelines to address these issues. Rural regions are experiencing structural crises such as population aging, population decline, and the weakening of community networks, which have led to the qualitative deterioration of spatial environments and a decline in residents' satisfaction with daily life. Existing development approaches focused primarily on expanding physical infrastructure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effectively resolve these complex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a more qualitative and integrated design approach, highlighting public design as an effective strategy for addressing the multifaceted challenges of rural areas. By presenting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s for public design guideline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future policy and design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spatial environments of rural communities.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to explore the specific components and application methods of such guidelines in greater depth.

Keyword

Rural Areas(농산어촌), Public Design(공공디자인), Design Guidelines(디자인가이드라인)

요약

본 연구는 농산어촌 지역이 직면한 사회적·공간적 문제를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산어촌은 고령화, 인구감소, 공동체 약화 등 구조적 위기로 인해 공간환경의 질적 저하와 주민의 생활 만족도 하락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물리적 기반 중심의 개발방식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정성적이고 통합적인 디자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공디자인이 농산어촌 문제 해결의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이론적·실천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농산어촌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설계적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구성과 적용방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 2-1. 농산어촌의 공간환경 특성 및 문제점
 - 2-2. 선행연구 동향
-

3. 디자인가이드라인 원칙 및 방향성

- 3-1. 디자인가이드라인 주요 원칙
- 3-2. 분야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성

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농산어촌 지역은 도시와 비교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기반시설의 열악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정체성이 약화되는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농산어촌의 공간환경과 공공디자인은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고유의 환경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친화적 접근을 조화시키는 디자인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산어촌을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미비하거나 도시 중심의 기준을 단순 적용하는데 그치고 있고 비도시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간디자인 계획이 필요함에도 안내판, 간판, 시설물 및 오픈스페이스, 가로경관계획 등 제한적 범위 내 적용되거나 개발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¹⁾이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침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농산어촌 지역 공간환경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농산어촌 지역은 도시와는 달리 저밀도, 저층의 특성과 자연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공간환경 설계가 요구되나, 이에 적합한 구체적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농산어촌 공공공간은 주민의 다양한 세대와 신체 조건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적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적용 사례가 제한적이다. 셋째,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따라서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은 지역 활성화와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농산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조성과 주민

1) 장영호, 농산어촌의 공간디자인 정책 연계를 위한 프로세스 협력방안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25.3, 10(1).

중심의 공공디자인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첫째, 농산어촌 지역의 환경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체계적 틀을 마련한다. 둘째, 건축물, 경관, 오픈스페이스, 공공기반시설, 색채, 조명, 사인, 옥외광고물,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디자인 등 구체적 항목별 디자인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주민 참여와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실무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자인 전략을 제시하여 농산어촌의 공간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연구방법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및 현장의 문제점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농산어촌 관련 정책자료, 공간환경 개선 사례, 공공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고찰 등을 통해 농산어촌 공공디자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디자인 분야를 포함하여 농산어촌 지역에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여 향후 가이드라인 제시에 필요한 실천적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농산어촌의 공간환경 특성 및 문제점

농산어촌 지역은 도시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물리적, 사회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넓은 지역에 분산된 주거지, 낮은 인구밀도, 자연 중심의 경관, 공동체 기반의 생활문화는 이러한 특성을 대표한다. 그러나 최근 농산어촌은 인구 고령화, 청년 인구의 이탈,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물리적·사회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간환경의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방치된 빈집, 기능을 상실한 마을공간, 열악한 보행환경 등은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외부 방문객에게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공디자인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모든 디자인 활동으로,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심미성,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를 지향한다. 도시 중심으로 발전해온 공공디자인은 최근 농산어촌 등 비도시지역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지역정체성의 회복, 주민의 공간적 권리 보장,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은 단순한 시설물 설치를 넘어, 지역 고유의 자원과 문

화, 주민의 삶을 반영하는 통합적 공간기획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어촌의 공간환경 개선에 있어 공공디자인은 물리적 환경 정비와 함께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실천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산어촌이 처해있는 공간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디자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개별 지역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유연한 디자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2. 선행연구 동향

농산어촌 공간환경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분야는 최근 지속가능성, 지역 정체성 강화, 주민 참여,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도시와 대비되는 농산어촌 지역만의 특성과 환경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디자인 전략이 강조되는 점이 특징이다.

2-2-1. 농산어촌 공간환경디자인의 특성 및 필요성

다수의 연구에서 농산어촌은 도시와 달리 인구 감소, 고령화, 기반시설 열악, 지역 정체성 약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간환경 디자인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권경주·이진호(2021)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발전으로 지역사회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문화 콘텐츠와 지역의 역사도 소외되고 있어 농촌중심지 도시정비사업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운설·한승석·장충희(2023)는 공공시설물, 안내시스템, 환경 정비 및 가로경관을 중심으로 전개된 공공디자인은 지역민들의 지역정체성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하였다.

2-2-2.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는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나, 최근 농산어촌 특화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종성·박재홍(2018)은 유형별 공공디자인 항목은 대부분 도시 시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농촌·산간·어촌 관련 세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전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인식과 고려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손은지 외 2(2021)는 공공사업의 공통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기본 계획부터 공사 시행단계까지 일련의 공공디자인 자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영호 외

2(2020, 2021, 2023)는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시리즈를 통해 농산어촌 공공디자인의 현실과 가이드라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2-2-3.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적용

농산어촌의 공공공간에서 유니버설디자인과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연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오수민(2018)은 농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에서 선행되었던 CPTED 방안을 바탕으로 농촌 실정에 맞는 CPTED 체크리스트를 재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상 마을에 적용시킴으로써 향후 농촌마을에서 활용 가능한 CPTED를 파악하였다. 또한 최령 외(2008)는 농촌 지역의 문화적 및 생활적 특성을 반영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농촌 주거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농촌 지역에 적합한 유니버설디자인 주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2-2-4. 지역 주민 참여와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농산어촌 공공디자인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와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연구가 공통적으로 제시된다. 이석현(2017)은 디자인 계획에 있어 사전조사결과 및 요구조건을 토대로 필수적 활동과 선택적 활동, 사회적 활동의 종합성을 고려하여 물리적인 공간계획과 함께 공동체 참여프로그램과 역할을 명시하고 활동방향을 같이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통합적인 지역 공간개선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주장하였다. 장영호(2025)는 공간디자인 관련 정책을 연계하고 행정, 지역, 민간에 걸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2-5. 소결

기존 연구들은 농산어촌 공공디자인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으나,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가이드라인 구체화와 통합적 설계 프레임워크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실증 사례가 부족하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며, 유니버설디자인과 CPTED를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 설계방안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및 스마트기술 도입에 따른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전략 연구가 새로운 연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3. 디자인가이드라인 원칙 및 방향성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농산어촌 지역의 공간환경

특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3-1. 디자인가이드라인 주요 원칙

3-1-1. 친근한 조망과 안전을 고려한 시설접근을 위한 건축물의 위계

친근한 조망과 안전을 고려한 시설 접근을 위하여 건축물의 위계는 주변 경관과 마을 전경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Skyline) 구성을 지향해야 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의 저층형 및 집중형 복합단지 형태로 통합된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2. 주변시설과 연계한 배치계획

주변 시설과 연계한 배치계획에서는 각 시설 간 사업 연계를 통해 중복 공간을 최소화하고 공유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기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며, 마당이나 광장, 공원을 중심으로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하여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구성원 간 협력과 연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 공간을 시간적, 기능적, 공간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특히 광장(공터)이나 공원을 중심으로 한 건물 배치가 가능하며(그림 1, 2), 보행자 전용 통행로를 중심으로 저층형 건물을 배치하고 내·외부 공간을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공간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그림 3)이 효과적이다.

3-1-3. 보행자 누구나 안전한 보도 계획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동휠체어 사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폭을 확보하고 경사나 장애물이 없도록 설계 및 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폭을 2.5m 이상으로 유지하고 통행로 내 장애물 설치 금지와 수평면을 유지하여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때 차량 진출입을 위한 경사로는 개인대지와 장애물 존에 설치한다.(그림 4)

또한 녹도형 보행자 전용도로는 폭을 3m 이상으로 계획하여 녹지대, 자연녹지, 휴게 쉼터, 주거지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보행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응급 및 비상 상황에 대비한 도로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보도와 단차가 없는 횡단보도를 계획하고, 횡단보도 바닥에는 매립 전구나 집중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저탄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자와 자동차 전용도로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도 계획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환경 친화적 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광장(마을) 중심의 건물배치²⁾



[그림 2] 공원 중심의 건물배치³⁾



[그림 3] 보행자전용 통행로(가로)를 중심 배치 및 연계⁴⁾



[그림 4] 주거형 보행자전용도로 사례⁵⁾

2) 그림 출처 : 장영호, 최령, 주정민,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총론 및 공공건축 설계편]. 한국농어촌공사, 2020, p.12.

3) 그림 출처 : ibid., p.12.

4) 그림 출처 : ibid., p.12.

5) 그림 출처 : ibid., p.13.

3-1-4.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범죄예방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에서는 어두운 골목길이나 외진 길 등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CCTV, 비상벨, 반사경 등을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방법론이 요구된다.(그림 5) 아울러 외부의 부적절한 출입을 견제하고 공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설계를 실시하며, 어두운 골목길에는 시야 확보와 따뜻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안심길을 조성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안심벨, 안내 간판 등의 시설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6)



[그림 5] 범죄 사전 차단⁶⁾



[그림 6] 안심 길 조성⁷⁾

3-1-5.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는 옥외조명 계획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옥외조명 계획에서는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과도한 조도를 지양하고, 주변 환경에 빛 공해를 최소화하도록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필요 시 시간대별 밝기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6.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형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형태는 색채, 소재, 규모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간결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자극적인 유채색 대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저채도 색을 주조색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건물의 규모는 자연환경을 압도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한하며, 지역 특성과 스토리를 재해석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양광 패널은 개별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건물과 일체화된 형태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요

소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외장재와 유사한 재질과 컬러를 적용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3-1-7. 환경과 조화되고 시각적 통합을 이루는 재료 및 색채 계획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시각적 통합을 이루는 재료 및 색채 계획에 있어서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재료를 선정하여 건축물에 친근함과 조화감을 부여해야 하며, 과도한 재료 사용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이미지는 지양해야 한다. 마감재의 고유 색채를 살려 입면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주변 자연환경과 연속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컬러가 내재된 자연 소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마감재 자체의 질감과 색이 입면에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분야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성

3-2-1. 건축물

농산어촌 지역의 건축물은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 및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저층이면서 수평적인 형태를 지향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태는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며, 지역의 시각적 일체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건축물의 배치에 있어서는 접근성과 경관의 중심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주요 공공시설은 중심 마당을 중심으로 집약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건축 재료는 목재, 흙, 기와 등과 같이 지역의 전통적인 소재를 활용하거나 자연의 질감을 살린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색채 계획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색채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저채도와 저명도의 색상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구성하여야 하며, 이는 농산어촌의 자연경관과의 시각적 통합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패시브 디자인 원칙을 반영하고, 태양광 및 지열 등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3-2-2. 경관 및 조망

농산어촌의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산림, 논밭 등의 농촌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전망대나 언덕과 같은 조망점에서의 시야 확보를 위해 시선의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조망축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각적 개방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상징적인 구조물을 랜드마크로 제안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강화 및 외부 방문객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6) 그림 출처 : ibid., p.15.

7) 그림 출처 : ibid., p.16.

3-2-3. 오픈스페이스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공간 구성을 위해, 광장이나 마당 형태의 오픈스페이스는 다 기능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은 주민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중심 무대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 생물과 연계된 생물서식지를 조성하고, 자생식물을 위주로 식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수변 자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천이나 저수지 등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관 요소로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물과의 조화로운 공간을 구현하여야 한다. 쉼터의 경우, 노약자, 어린이, 외부 방문객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벤치, 그늘막 등의 휴게시설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3-2-4. 공공기반시설

공공기반시설의 디자인은 통일성을 기반으로 하여 버스정류장, 가로등, 볼라드 등 주요 가로시설물에 일관된 디자인 언어를 적용하여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난간, 석축, 배수구 등 토목구조물에 대해서도 농촌 경관에 어울리는 자연친화적 재료와 형태를 적용함으로써 경관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시설은 지형의 특성을 반영한 구조와 명확한 안내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기반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공공조형물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예술작품으로 기획되어야 하며,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와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5. 색채 계획

농산어촌의 색채 계획은 마을 단위에서 구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성된 색채 팔레트를 개발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색채 정체성을 형성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색채는 무채색 또는 자연색 계열을 중심으로 하되, 지붕은 갈색이나 회색 계열을 권장함으로써 경관과의 시각적 조화를 꾀할 수 있다. 시설물의 색채는 기능적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며,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도 대비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3-2-6. 조명 계획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 조명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특히 보행자 동선, 횡단보도, 이면도로 등에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경관 조명은 문화자원과 야간경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빛의 강도를 낮추고 은은한 라이트 업(Light-Up)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환경 조명은 태양광 조명기구의 활용과 더불어, 시간대별 밝

기 조절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조명은 어두운 골목길이나 후미진 공간에 센서등 및 집중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시간대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2-7. 사인 및 정보안내

사인 및 정보안내 체계는 마을의 로고타입, 서체, 픽토그램 등을 포함한 통일된 시각언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는 정보 전달의 명확성을 높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사인의 위치는 사용자의 시선 방향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지면으로부터 1.2~1.6m 높이가 적정하다. 정보는 방향 안내, 일반 정보, 문화 해설 등 계층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방문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사용 재료는 내구성이 뛰어난 목재, 금속, 재활용 자재 등으로 선택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2-8.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은 정비와 규제를 통해 마을 경관을 정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상가의 세로 간판 및 돌출 간판은 지양하고, 입면과 조화를 이루는 일체형 간판을 권장함으로써 가시성과 미관을 동시에 확보하여야 한다. 노후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은 제거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는 시각적 질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디지털 광고물의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주거지 인근에서는 설치를 제한하여 시각 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3-2-9.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모든 사용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에 따라 보행로는 휠체어와 유모차가 동시에 통행할 수 있도록 최소 2.5m 이상의 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표면은 평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수평적 동선 계획을 우선하며, 높이차를 극복하기 위한 경사로는 충분히 완만하게 설계하여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점자 블록, 음성안내기, 고대비 시각디자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무장애 화장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가구, 경사면에 핸드레일 설치 등 편의시설의 확충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3-2-10. 범죄예방디자인(CPTED)

범죄로부터 안전한 농산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CPTED 원칙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마을 내부와 골목길에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고, 출입 통제를 통해 방문객 동선과 주민 생활 공간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울타리, 조명, 사인 등을 활용하여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영역성 확보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마을 자율 관리조직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1] 분야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성

구분	내용
건축물	- 형태 및 규모: 주변 자연환경 및 기존 건축물과 조화되는 저층수평형 구조 지향 - 배치 계획: 경관 보호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공공시설은 중심 마당 주변에 배치 - 재료 및 마감: 지역 전통 소재(목재, 흙, 기와 등) 또는 자연질감을 살린 친환경 재료 활용 - 색채 계획: 지역 고유 색채 체계에 기반한 저채도·저명도 계열 적용 - 에너지 효율: 패시브 디자인 원칙과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 시스템 고려
경관 및 조망	- 스카이라인 보호: 산림, 논밭 등 농촌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 - 조망축 설정: 주요 조망점(전망대, 언덕 등)에서의 시선 방해 요소 최소화 - 랜드마크 계획: 전통문화, 지역사 특성과 연계된 상징적 구조물 제안
오픈 스페이스	- 광장 및 커뮤니티 공간: 다기능 활용 가능한 마당 또는 광장 조성 - 녹지공간: 지역 생태와 연계한 생물서식지 조성, 자생식물 위주의 식재 - 물과의 관계: 하천, 저수지 등 수변공간의 접근성과 경관성 강화 - 쉼터 디자인: 노약자,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벤치, 그늘막 등 휴게공간 설치
공공기반 시설	- 가로시설물: 버스정류장, 가로등, 불라드 등은 통일된 디자인 언어 사용 - 토목구조물: 난간, 석축, 배수구 등은 농촌 경관에 맞는 소재와 형태 적용 - 방재시설: 자연재해 대비형 지형형 방재설비, 안내시설 설치 - 공공조형물: 주민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한 공공예술품 배치
색채 계획	- 지역색채 시스템화: 마을 단위의 색채 팔레트 개발(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 건축물 색채: 무채색 또는 자연색계열 위주 적용, 지붕색은 갈색·회색 계열 권장 - 시설물 색채: 기능적 분류(정보, 경고 등)에 따라 명도 대비 확보
조명 계획	- 기능 조명: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인지 가능한 조도 확보 - 경관 조명: 문화자원 및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은은한 라이트 업(Light-Up) 적용 - 친환경 조명: 태양광 조명기구, 시간대별 밝기 조절 시스템 도입 - 범죄예방 조명: 어두운 골목길에 센서등, 집중조명 설치

사인 및 정보안내	- 디자인 통일성: 마을 로고타입, 서체, 픽토그램 등 통일된 시각언어 적용 - 사인 위치: 이용자 시선과 접근성을 고려한 적정 높이(1.2~1.6m) 권장 - 정보 계층화: 방향(지시), 설명(정보), 해설(스토리텔링) 등으로 구분 배치 - 재료 선택: 내구성 있는 목재, 금속, 재활용 자재 활용
옥외 광고물	- 간판 규제: 상가의 세로 간판 및 돌출간판 자제, 일체형 간판 권장 - 광고물 정비: 낡은 광고물은 제거 또는 새 디자인으로 통일 - 디지털 광고물 제한: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는 문화재구역, 주거지 인근 제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보행로 확보: 휠체어와 유모차가 동시 이용 가능한 폭 2.5m 이상 - 수평 동선 계획: 경사로 최소화, 높이차 극복을 위한 완만한 경사로 설치 - 정보 접근성: 점자 블록, 음성안내기, 고대비 시각디자인 등 포함 - 편의시설 확충: 무장애 화장실, 높낮이 조절 가능한 가구, 경사면 핸드레일 설치
범죄예방 디자인 (CPTED)	- 자연적 감시: 마을 내부와 골목길에 충분한 시야 확보 - 출입 통제: 방문객 동선 및 주거지 구분 명확화 - 영역성 강화: 울타리, 조명, 사인 등으로 공공·사적 영역 구분 - 유지관리 계획: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자율 관리조직, 마을 유지관리 매뉴얼 등)

4. 결론

본 연구는 농산어촌 지역이 직면한 사회적, 공간적 문제를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농산어촌은 고령화, 인구감소, 공동체 약화 등 다양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공간환경의 질적 저하와 생활 만족도의 하락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물리적 기반 확충 중심의 개발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정성적이고 통합적인 디자인 접근이 요구된다.

공공디자인은 이러한 농산어촌 문제 해결을 위한 유효한 전략으로, 기능성뿐 아니라 심미성, 접근성, 안전성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설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유니버설디자인은 고령 인구가 많은 농산어촌에서 보편적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디자인은 증가하는 유희공간과 빈집 문제 속에서 주민의 심리적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농산어촌 공간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디

자인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시각적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정체성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정책적 연계성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실천적 설계기준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산어촌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이론적 및 실천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구성요소와 적용방법에 대한 심층적 고찰이 필요하며, 다양한 지역의 사례 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 2020.
2. 김상규 외,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19.
3. 장영호, 최령, 주정민,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총론 및 공공건축 설계편]. 한국농어촌공사, 2020.
4. 장영호, 최령, 주정민,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건축 시공편]. 한국농어촌공사, 2022.
5. 장영호, 최령, 주정민,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건축 설계심화편]. 한국농어촌공사, 2023.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지역 공간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2022.
7. 해양수산부,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예규 제125호, 2021.
8. 행정안전부, 공공디자인의 기준과 원칙, 2021.
9. 권경주, 이진호, 농촌중심지의 공공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 : 영천시 금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2021.
10. 손은지, 장영호, 김주연,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지, 2023.
11. 이석현, 공동체 참여형 공간디자인 프로세스 연구 : 시흥시 대야동을 대상으로, 한국디자인학회지, 2017.
12. 이종성, 박재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한 지자체별 농산어촌에 대한 인식 연구 : 16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024.
13. 장영호, 농산어촌의 공간디자인 정책 연계를 위한 프로세스 협력방안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25.
14. 조윤설, 한승석, 장충희,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지역정체성 활성화 방안 연구 : 부여 장암면 장하 1리(장정마을)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학회지, 2023.
15. 채완석, 장영호, 농산어촌 개발사업 분석을 통한 공공디자인 적용방안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25.
16. 최령, 변혜령,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 따른 농촌지역 주거환경의 공간 및 사용 특성의 평가 분석, 2008년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17. 오수민,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CPTED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